

거리두기 4단계 이행실태 점검

전주시, 시민경찰·자율방재단 등 220여명 집합금지·운영제한 명령 이행여부 단속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늘면서 전주시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전주시가 시민들과 함께 거리두기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전주시는 31일과 9월 1일 이틀 동안 시민경찰, 자율방재단, 공무원 등 220여 명을 투입해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이행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지난 27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가 4단계로 격상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전주를 8개 권역으로 나뉘어

유형시설 ▲식당 ▲카페 ▲공원 ▲광장 등 다중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및 21시 이후 운영제한 명령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점검에는 코로나 위기 극복과 확산세 종식을 위해 시민경찰 및 자율방재단 등 시민단체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예정이다.

점검 결과 집합금지를 위반했거나 운영시간 제한 이행사항을 위반했을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 부과와 운영중단 조치 등 엄정 대응한다.

다는 방침이다. 이에 앞서 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격상 이후 공무원을 중심으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김철현 전주시 시민안전담당관은 "코로나19 확산 예방을 위한 방역수칙 준수 등 시민들의 노력을 당부드린다"면서 "전주시는 4차 유행 방지를 위해 4단계 격상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또드락쟁이’ 마을 공방, 서서학동에 활기 불어넣는다

전주시·서학동 마을계획추진단, 주민 교류 통해 공동체 활성화·일자리 창출 기대

전주시 서서학동 주민들이 이웃을 위한 목수가 돼 활동하는 마을 공방이 문을 열었다.

전주시와 서학동 마을계획추진단은 마을공동체 거점공간인 ‘또드락쟁이’ 마을공방을 다음 달부터 운영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 공모 소규모재생사업인 ‘서서학동 청춘 STAY 사업’으로 조성한 또드락쟁이 마을공방은 서서학동 주민들의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교육·문화·휴식공간이다.

또드락쟁이 마을 공방은 노후주택이 많은 지역의 특성을 살려 주민들을 위한 집수리 봉사와 공구 지원, 휴식공간 제공 등 주민들 간의 교류를 통해 공동체를 활성화하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역할을 하게 된다.

시는 지난 7월부터 약 한 달 간 주민 주도의 마을공방 운영을 위한 기초역량교육인 또드락쟁이 집수리단 양성 교육과정을 운영했으며, 그 일환으로 안산공원과 재실어린이공원에 마을림



터와 공유책장을 설치하기도 했다.

마을주민들은 향후 이곳을 활용해서 스스로 목수가 돼 목공예 및 집수리단을 운영할 예정인 만큼 집수리 봉사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사회연대지원단 관계자는 "서서학동 또드락쟁이 마을 공방 운영

을 기반으로 마을공동체가 자생력을 확보하고 자립할 수 있는 공동체로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또드락쟁이’라는 이름은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와 향수를 되새기자는 취지로 과거 서서학동에 밀집해 있던 대장간에서 나던 소리인 ‘또드락’에서 따왔다.

/김윤상 기자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전주푸드 추석선물세트 판매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전주에서 생산된 안전하고 맛 좋은 먹거리가 선물세트로 출시됐다.

(재)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사무국장 이영애, 이하 센터)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100% 우리 농산물로 구성된 선물세트를 내달 20일까지 직매장 경기장점과 송천점, 온라인 쇼핑몰(jfoodmarket.co.kr)을 통해 판매하는 추석맞이 특별전을 마련했다고 30일 밝혔다.

500여 농가의 농산물로 꾸려진 이번

추석맞이 특별전에서는 전주와 인근 시·군 지역에서 생산된 농·특산물과 이를 활용한 가공품, 한우 등 다양한 구성의 선물세트가 판매된다.

특히 센터는 ▲사과·배·포도 등의 제수 필수 과일류 ▲한우 ▲김부각 ▲잡곡 ▲한과세트 등 명절 인기 품목의 경우 충분한 물량을 확보해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이번 특별판매전은 직매장을 직접 방문하거나 전주푸드마켓 온라인 쇼

핑몰과 전화(063-253-9850) 등으로도 참여할 수 있다. 센터는 전주푸드 추석 명절 선물세트를 주문하는 고객들을 위해 무료 택배배송 지원도 한다. 택배 마감일은 오는 9월 16일까지이며, 배달지 주소가 전주가 아닌 타 지역일 경우에는 9월 15일까지 주문하면 된다.

이외에도 센터는 추석 선물세트 외에도 제철 농산물을 이용한 김치와 반찬, 돼지갈비 등 조리 음식도 판매해 시민들이 명절 음식을 간편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줄 계획이다.

/김윤상 기자

청소년 성장 돕는 ‘전주사람 프로젝트’ 가동

전주정신·문화·관광지·역사·지명 등 지역 탐구 학습 전개

전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전주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창의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 2학기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사람 프로젝트는 청소년들이 전주의 정신·문화·관광지·역사·예술의 글감을 소재로 ▲코칭 학습법 ▲미디어 리터러시 활동 ▲스토리텔링 영상 콘텐츠 제작 활동 및 발표회 등을 통해 스스로 전주를 배우는 내용으로 진행된다.

특히 참여한 청소년들은 이 프로젝트를 통해 스스로 기초 학습 능력 습관을 만들고 이를 생활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자긍심과 자기 주도 역량을 향상시키게 된다.

용 교육 ▲특별 우리 지역·학교 역사 및 문화 소개 시나리오 제작 ▲특별 제작 영상 상영 ▲특별 시나리오 구성 동기 및 과정 발표 ▲최고의 작품 투표 및 선정 ▲시상



전주시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돕는 ‘야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역 청소년들이 전주에 대한 기본 지식을 배우고 창의형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2021년 2학기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식 및 활동 소감 나눔 등이다.

시는 프로젝트 진행 중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및 학교별 상황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비대면 수업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19년 11월부터 총 12주의 교육과정의 교육을 거쳐 청소년들의 길잡이 역할을 수행할 19명의 야호학교 코칭단을 양성했다.

이후 지난해 시범 프로젝트를 거쳐 올해는 신홍중학교 1학년 학생 180명이 정규 과목 수업 시간을 활용해 전주사람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또, 화정중과 오송중, 기전중에서도 현재까지 2016명의 학생들이 전주사람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학기에는 효문여중, 덕일중, 용소중, 근영중(꽃심 도서관 연계) 학생 275명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또, 화정중과 오송중, 기전중에서도 현재까지 2016명의 학생들이 전주사람 프로젝트에 참여했으며, 2학기에는 효문여중, 덕일중, 용소중, 근영중(꽃심 도서관 연계) 학생 275명이 함께 참여하게 된다.

/김윤상 기자

전주시, 야호 놀이터·놀이시설 정보 ‘한눈에’

생태놀이터·책놀이터·장난감 도서관·일반 공원 놀이터 등 표기 ‘야호놀이터 지도’ 제작

아이들이 보다 쉽게 다양한 종류의 놀이시설에 찾아가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놀이터지도가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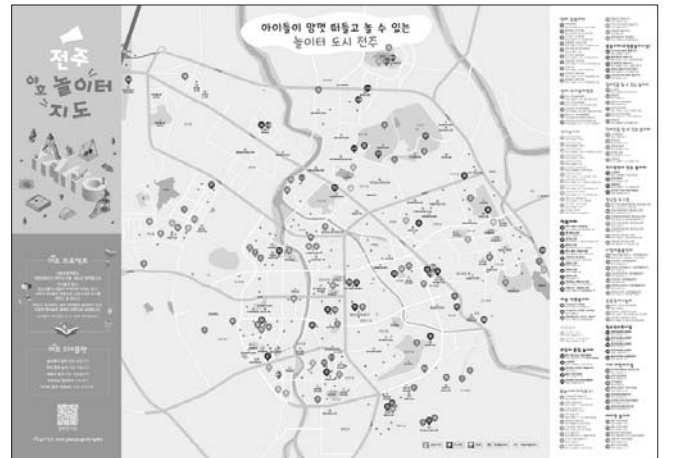
전주시는 기존 ‘야호놀이터 지도’에 최근 추가로 조성된 놀이터와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테마별 놀이터, 기타 아동 관련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한 ‘전주 야호놀이터 지도’를 제작했다고 30일 밝혔다.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다양한 야호 놀이터 및 놀이시설의 정보를 담은 야호 놀이터 지도는 오는 9월 중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돌봄기관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많은 시민들이 지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35개 동 주민센터 등에도 비치된다.

야호 놀이터 지도에는 전주지역 곳곳에 위치한 ▲생태·숲체험장 ▲유아숲체험원 ▲생태놀이터 ▲예술놀이터 ▲책놀이터 ▲야호학교 ▲장난감 도서관 ▲물놀이터 ▲청소년수련시설 ▲다함께돌봄센터 ▲무장애 통합놀이터 등 116개소의 위치 정보가 표기됐다. 이와 함께 공원 놀이터 160여 곳 등 다양한 놀이시설이 표기됐다.

특히 시는 지도 뒷면에 모든 놀이시설이 테마별로 분류되고, 놀이터별 위



전주시는 기존 ‘야호놀이터 지도’에 최근 추가로 조성된 놀이터와 책놀이터, 예술놀이터, 테마별 놀이터, 기타 아동 관련시설 등 다양한 놀이시설을 추가한 ‘전주 야호놀이터 지도’를 제작했다.

치와 시설 사진, 이용시간, 전화번호 등을 수록해 이용하고 싶은 놀이터 테마를 선택해 즐길 수 있도록 했다.

야호 놀이터 지도는 ‘야호놀이전주’ 홈페이지(jeonju.go.kr/yaho)나 종이지도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최현창 전주시 기획조정국장은 “전

주시는 다양한 놀이터 조성 및 놀이터 환경개선을 통해 아이들이 맘껏 떠돌고 에너지를 발산하며 즐겁게 성장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아동들이 맘껏 뛰어놀며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놀이터 도시 전주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